

물 가을엔 책 한권 읽어볼까?

1억 1만 3천번 읽은 독서광 '김득신'

“천번을 읽지 않은 책은 기록에도 올리지 않았다.”

현대는 각종 문명의 이기들로 인하여 책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집에 있는 시간에는 대부분 텔레비전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최근에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로 인하여 인터넷이 우리들 생활에 깊게 파고들어 더더욱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달에 읽는 책은 몇 권이나 될까?

문화관광부 2007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12.1권으로 1996년 9.1권에 비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한 학기 독서량은 13.5권으로 초등학생이 22.4권, 중학생 10.7권, 고등학생 7.4권으로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생 독서량 감소 폭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 이는 컴퓨터, 게임 등 다른 매체 이용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성인의 여가활용은 TV시청에 이어 책읽기가 2위를,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TV시청과 컴퓨터게임에 이어 책읽기가 3위를 차지했다. 중학생은 TV시청, 컴퓨터게임, 인터넷 등에 이어 7위에 머물렀으며, 고등학생은 TV시청, 인터넷게임 등에 이어서 5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TV시청과 컴퓨터가 책 읽을 시간을 모두 빼앗아 버린 셈이다.

이처럼 인터넷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요술방망이처럼 여기는 풍조가 만연한 세상에서 책읽기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퇴색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굳이 책 읽기를 강조해야 하는가 라는 반문을 하고 싶다.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

“독서상우(讀書尙友)”라 했다.

“책을 읽으면 옛 사람들과도 벗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맹자는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선비와 사귀는데 만족하지 않고 책을 통해 옛 성현들과 벗하라”고 강조했다. 책 속에서 옛 현인의 사상을 깨닫고 살아 있는 벗처럼 성현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독서는 글속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상상력, 논리력과 비판력을 길러주며, 학습능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책 속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많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장서가 많기로 으뜸이었던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은 “나는 하루도 책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로 독